

大學教育의 卓越性 高揚



全南大 總長 吳 恒 基

I. 머리말

1981年 卒業定員制 실시 이래 學生數는 폭발적으로 增加해 왔고, 이에 따라 收容 施設의 不足, 教授充員의 隘路 現象을 빚었으며 이는 또한 大單位 學級 編成을 부득이할 경우가 많아 學生 個個人에 대한 教授의 關心集中이 소홀하게 되어 大學教育의 質의 向上에 問題點을 제기하게 되었다. 심오한 學問의 理論과 실천적 應用方法을 연구하고 教育하며 國家社會 發展에 봉사하는 이른바 大學의 三大目的 내지는 機能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기 위하여,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現狀은 大學人들의 渾身의 努力을 요구하고 있다.

政治, 經濟, 社會, 文化 등 各방면에 걸쳐 국제적인 경쟁과 도전에 대응하면서 自然資源賦存의 缺乏을 高級頭腦資源으로 보충해야 할 우리의 처지에서 大學教育의 卓越性의 提高는 國家的 至上 課題라 아니할 수 없다. 本稿는 大學教育의 卓越性 提高의 문제를 大學의 기능인 教育, 研究, 奉仕를 위주로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II. 教育機能의 卓越性

教育은 教授와 學生間의 交互作用의 場이다. 따라서 이 交互작용의 過程을 分析하여 그 과정에 관여하는 諸 要因 자체의 精銳化· 效率化를 도모함과 동시에 각 요인간의 關聯을 教育적으로 能率化함으로써 教育機能의 卓越化를 기할 수 있다. 交互作用過程에의 參與因子로는 人的 因子(教授—學生)와 物的 因子(內·外部 施設) 및 教育工學的 因子(教科書, 教授法, 評價 등)를 들 수 있다.

教授의 質이 대학교육의 質을 좌우하는 決定的 因子임은 주지의 사실로서 그들의 基本的 資質, 學力, 經歷, 研究業績, 學問에의 態度· 熱意 등을 最適의 水準에서 유지할 수 있는 施策이 강구되어야 한다. 同族繁殖的(inbreeding) 教授任用을 止揚하여 우수한 人材를 公募하고 그의 教育活動을 最適化하기 위한 諸般 裝置가 강구되어야 한다. 優秀教授의 誘致策(報酬, 住宅, 研究環境 등)도 적극 마련되어야 한다.

學生의 質 또한 대학교육의 質향상의 重要 要因임을 부인할 수 없다. 왜냐하면 授業을 통한 教授와의 交互作用에서의 중요한 參與者(partner)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우수한 教授의 能率的인 수업도 이를 받아들이는 學生의 적절한 반응이 없을 때는 教育의 結實은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高等教育

을 받을 수 있는 知的 能力 所持者의 選拔이 첫째 重大事이며, 둘째로는 그들에게 成就意慾을 고취하여 學問에의 接近方法, 分析과 綜合能力 등 高等精神能力을 갖춘 積極적이고 肯定的인 價値觀의 所有者로 教育하는 것이 중요하다. 教授와 學生의 質管理는 後述할 教育工學的 因子와 大學의 研究機能 영역에서 再論하고자 한다.

現下 우리나라 大學生 募集方法에는 깊은 思考와 그 實踐方式의 改善이 요청되고 있다. 學問에의 適性을 무시하고 卒業後의 就職만을 고려한 學科選擇이라든지 高等교육을 받을 만한 知的 能力의 所有如何를 不顧하고 脫落이 예정된 30%의 增募 등은 大學界의 課題라고 할 수 있다. 졸업후의 求職의 難易度나 報酬의 多寡 등이 入學志願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임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나, 適性에 맞는 學科選擇은 학생의 修學過程을 더욱 有効化하고 的的인 것으로 하겠기에 入學志願에 따르는 학생의 適性把握의 문제는 대학교육에 着目한 학생을 誘致하는 차원에서 研究되어야 할 과제이다.

다음 教授와 學生間의 交互作用 關係에 있어서 物的 因子로서의 內部 및 外部施設의 適正線 維持는 投資財源과 상환하는 것으로서 過不足이 없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內·外施設을 갖추도록 연구되고 활용되어야 한다. 内部施設의 주종을 이루는 圖書와 學問雜誌, 實驗實習用 機資材 및 視聽覺 教具 등은 대학 전체를 통하여 중복을 피하고 管理의 閉鎖性을 止하여 그 活用度를 높이는 方案이 강구되어야 한다. 高價의 實驗機材의 導入이 중복되고 그 運用·管理마저 폐쇄성을 면치 못하여 활용도가 저조했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음은 대학의 教育機能 中 가장 中樞의 役割을 담당하는 教育工學的 因子를 언급하고자 한다. 우수한 教授·學生·施設의 존재만으로 大學教育의 卓越性을 高揚하기는 어렵다. 이들 三者의 相互作用이 教育公學적으로 最適의 關係를 유지하도록 하는 戰略이야말로 각자의 能力과 機能을 최고로 발휘하게 하는 것이다. 위 三者의 力動的이고 效果的인 相互作用을 위한 전략으로서는 먼저 時代와 世界의 潮流에 적응하는 教育課程의 運營, 이를 기초로 하여 편성된 各學科目的 教授要目(syllabus)의 制定, 교수요목에 입각한 教材(text)의 편찬, 이 교재를 이용하는 教授方法의 개발과 개선, 教授의 結果에 대한 評價와 이를 다시 教材 開發과 教授方法에 環流(feed back)시키는 循環的 過程을 들 수 있다.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는 教育課程—教授要目—教材의 선에서 해결된다고 생각되며 다만 그 內容이 시대와 進運에 적합한가를 定期的으로 檢討할 장치가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무엇을 가르치기보다는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가 教授·學生間의 交互作用에서는 더 큰 比重을 차지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학의 三大目標의 달성은 배움의 場에서 効果적인 知性的 訓練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知性的 訓練은 평소의 교수·학생간 의 교호작용인 授業過程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때 尤호적질한 教授法 開發의 當爲性을 인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 大學界에서는 종래 教授法에 대한 關心이 一般적으로 稀薄했었다고 생각된다. 대학에서의 수업과정은 단순히 斷片的인 知識의 教授過程이어서는 안 된다. 分析, 批判, 綜合의 高等精神機能을 動員하는 探索的 眞理追究의 場이라야 하며, 학생의 흥미와 성취의욕을 자극하여 평소의 授業이나 課題 등을 즐거운 知的·精神的 挑戰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는 教材의 製作부터 문제가 된다. 교재의 내용으로서 是 理論의 展開와 더불어 그 이론의 理解接近法, 應用에 관계되는 設問까지를 마련하여 학생 스스로 問題解決의 노력을 하도록 編成되어야 한다.

授業戰略의 일환으로서 視聽覺教具의 重要性을 빠뜨릴 수 없다. 講義 일변도의 平面的 授業方式은 빨리 止揚되어야 하며 教授法 改善을 위한 강력한 行政的 支援과 體制가 요망된다. 영역별로 示範的 研究課題의 부여에 의하여 視聽覺教具의 이용에 관한 教授들의 關心을 振作시킬 필요가 있다.

끝으로 教授·學生間 交互作用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新入生의 敎導(orientation) 問題다. 최근 각 대학에서는 2泊 3日 정도의 일정으로 新入生 敎導期間을 마련하여 앞으로 4년간의 大學生活에 관한 指針을 주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家庭에서 學校에서 상당히 癖習을 받아들인 高校時節을 면치 못한 대학신입생들은 입학 후 향유하는 學園內의 自由空囂氣에 茫然 自失하여 大學生活

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음을 본다. 이는 오랜 受驗準備生活에서의 解放感에서 연유하리라 하고도 본다. 방황하는 그들을 빨리 安定시키는 것만이 그들이 성공리에 대학을 마치게 하는 捷徑일 것이다. 첫 학기를 안전하고 보람있게 修了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4년간의 대학생활의 成敗를 가린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新入生の 敎導는 세심히 計劃되어야 하며, 大學生活의 意義, 領域別 學問의 性格과 接近法, 交友關係 등 知的, 情誼的 刺戟과 挑戰을 줄으로써 바라는 學究的 動機를 誘發시켜야 한다. 新入生 敎導의 重要性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본다.

Ⅲ. 研究機能의 卓越性

대학의 研究機能은 教育機能과 더불어 大學存立의 雙壁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深奧한 學問의 理論과 實踐的 應用方法을 研究, 敎授」하는 大學의 機能으로 보아 研究야말로 새로운 知識의 創造作業이다. 새 知識의 創造 없이 學問과 社會發展을 기할 수 없음에 비추어 대학의 研究機能의 중대함을 절감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용한 研究를 導出해 내기 위한 研究雰圍氣의 조성이 필요하다.

圖書와 學問雜誌 및 實驗器具 등 物的 環境造成과 더불어 이를 有效적절히 구사할 수 있는 研究獎勵策이 강구되어야 한다. 研究費의 支給下에 長期 또는 短期의 安息年制度, 授業負擔의 減免에 의한 研究敎授制度 등을 마련하여 열던 研究雰圍氣를 醸成해야 한다. 研究 그 자체의 重要性에 못지 않게 연구의 事後管理도 소홀히 할 수 없다. 研究의 結果는 적절한 評價機構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하며, 우수한 연구에 대하여는 研究費의 계속 支援, 기타 惠澤이 반영되어야 하고, 研究의 成果가 빛을 보도록 環流 措置되어야 한다. 종래 研究의 傾向을 보면 연구를 위한 연구에 그치고 적절한 事後管理措置가 뒤따르지 않아 연구의 實效를 거두지 못하는 事例가 많았음은 크게 반성해야 할 것이다.

研究獎勵에는 교수들의 日常 常例의인 研究와 당면과제에 관한 機動的 政策研究課題의 賦與 등이 조화 있게 施行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政策研究課題는 그 事後措置에 세심한 關心이 있어야 한다.

흔히 教育과 研究의 輕重에 관한 논의가 있다. 「發刊이나, 蒸發이나」(Publish or perish)하여 敎授의 研究業績 위주에 치우쳐 教育機能이 등한시되어서는 안 된다. 理想的으로는 教育과 研究는 相互補完의으로 작용해야 바람직하다. 우리의 現狀으로 보아서는 오히려 教育機能에 약간의 比重을 더 두고 있는 實情이다.

대학의 研究機能이 教育機能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국면은 學府課程보다는 大學院課程이다. 그러므로 大學院課程의 充實化는 곧 研究機能과 직결되며, 따라서 大學院의 內質化는 대학의 내실화요 大學教育의 卓越化인 것이다. 여기에 大學院 內質化의 當爲性이 있다.

Ⅳ. 大學의 社會奉仕機能

知識의 創造가 오로지 대학에서만 기대되었던 옛 傳統에서는 고고한 象牙塔의 存在로서의 대학이 존립했으나, 知識의 爆發로 상징되는 現代社會에서는 대학은 이미 象牙塔의 存在가 아님이 상식화되었다. 지식의 창조가 대학만이 아닌 수많은 社會研究機關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복잡한 현대사회 인만큼 대학의 社會奉仕는 당연시된다고 하겠다. 國家의 次元에서 또는 地域社會的 次元에서 당면 문제에 관한 參與는 대학의 우수한 頭腦를 善用하는 것이며 社會發展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근래 보게 된 產學協同體制는 理論과 實踐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바람직한 產學協同으로 大學의 教育·研究의 成果가 社會奉仕로 연결되는 생기 있는 社會體系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大學教育의 卓越性의 提高를 대학의 3대 기능별로 略述하였거니와 각 機能은 고립적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고, 有機的으로 또 相互補完的으로 기능하는 것으로서 全大學人의 意識的, 意圖的, 積極的 關心 속에 성취되는 것임을 강조하고 싶다. *